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53호 【루게 제24931호】 주제104 (2015)년 6월 2일 (화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준공식을 앞둔 원산육아원, 애육원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국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한 일처럼 중대한 사업은 없다시며 이 땅위에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전설을 끝없이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친어버이사랑속에서 부모없는 어린이들의 희한한 궁전으로 일떠선 원산육아원, 애육원이 준공의 날을 맞이하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국 제 아동절인 6월 1일 준공식을 앞둔 원산육아원, 애육원을 현지지도하시였다.

황병서 동지, 리재일 동지, 조용원 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를 현지에서 건설부대 지휘관들이 맞이하였다.

원산육아원, 애육원은 우리 어린이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것을 마련해주고싶다고 하시면서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억만금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후대들에게 안겨주시는 또 하나의 은정 어린 선물이다.

원산육아원, 애육원 건설을 직접

발기하시고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몸소 풀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건설장을 여러차례나 찾으시여 자그마한 부족점이라도

있을세라 세심한 지도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현지 말씀을 심장깊이 새기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군인건설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특색있고 아담하게 건설된 원산육아원, 애육원에는 보육과 교육교양, 생활에 필요한 모든 조건과 환경이 최상의 수준에서 갖추어져있다.

들과 한 약속을 지킬수 있게 되었다고, 정말 수고들이 많았다고 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우리가 다 맡아는 세상에 없는 애국의 구호를 높이 들고 투쟁하고있는 군인건설자들의 고결한 혁명관, 미래관에 의하여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이 일떠섰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위훈을 거듭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오늘 원산육아원, 애육원의 준공식을 진행할 때 준공예프를 아이들이 끊게 하자고, 그래야 어른이 되어서도 자그마한 손으로 제 집의 테프를 끊고 들어서던 날을 일생토록 잊지 않을것이라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도 그 모습을 보시면 기뻐하실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원산육아원, 애육원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운영준비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군인건설자들과 해당 부문 일군들이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할수 있게 원산육아원, 애육원건설공사를 완전무결하게 마무리하였을뿐아니라 운영준비를 빈틈없이 해놓는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원아들이 생활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게 모든 요소요소를 흠잡을데없이 꾸려놓았으며 보육과 교육교양, 성장발육, 지능개발에 필요한 교구비품들과 운영물자 등을 충분히 갖추어놓았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준공식을 앞둔 원산육아원, 애육원을 현지지도하시였다



1 면 에서 계속

특히 애육원식당이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서 지난해에 왔을 때 원아들을 단번에 수용할수 없고 운영하기도 불합리하게 식사실을 여러층에 나누어 배치한것을 보고 300석 수용능력의 식당을 애육원건물과 조화되게 새로 지으라고 하였는데 잘 건설했다고 하시였다.

식당운영에 필요한 주방설비들과 집기류들도 그준하게 갖추어놓았으며 원자재도 그득히 쌓아놓았다고, 원아들이 여름에는 선선하게, 겨울에는 따뜻

하게 지낼수 있도록 지열에 의한 냉난방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해놓았다고 말씀하시였다.

아이들의 집이라는것이 직관적으로 알릴수 있게 문주도 특색있게 세워놓았으며 원아들이 마음껏 뛰놀수 있는 야외놀이장과 교통공원도 잘 건설해놓았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원아들을 잘 먹이고 최상의 생활환경을 보장해줄데 대한 문제, 보육원, 교양원들의 역할과 자질을 부단히 높이고 원아들에게 애국심을 깊이 심어주는

것을 비롯하여 교육과 교양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할데 대한 문제, 건물 및 설비관리를 책임적으로 하며 보건 위생화적원칙을 철저히 지킬데 대한 문제 등 원산육아원, 애육원의 운영을 잘하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원산육아원, 애육원이 정말 멋있다고, 볼수록 황홀한 이런 멋쟁이 아동궁전은 세상에 다시 없을것이라고 하시면서 부모없는 아이들을 당과 국가가 전적으로 맡아 돌봐주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직관적으로, 응변적으로 파시하는 내놓고 자랑할만 한 창조물이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원산육아원, 애육원과 같은 건축물들이 하나하나 일떠설 때마다 온 나라가 밝아지고 우리 인민들이 누구나 좋아한다고 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가 흉내낼수도, 지어낼수도 없는 우리 식 사회주의 제도의 참모습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을 받들어 원아들에게 훌륭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시니 얼마나

좋은가고, 그들이 당과 조국을 아버지, 어머니로 따르며 밝고 명랑하게 커서 나라의 믿음직한 역군이 될것이라고, 그것을 생각하면 오늘의 하루하루를 후대들을 위해 더 많은 땀을 흘리고 그 무엇도 아까지 말아야 하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진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원산육아원, 애육원이 완공됨으로써 조국의 귀중한 재부가 또 하나 늘었으며 강원도에 경사가 났다고 하시면서 준공식을 성대히 진행할데 대한 지시를 주시였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고 김윤동지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인민예술가인 피바다가극단 미 고인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술가 김윤동지의 서거에 깊은 었다.

김일성상계 판인이며 로력영웅, 애도의 뜻을 표시하여 1일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로씨야 령방무력 군악국장 겸 군악총지휘자가 선물을 드리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드리는 제 4차 국제군악축전에 참가한 로씨야 선물을 할레리 할렐로브 군악국장 조신인민군악단 일군에게 전달 겸 군악총지휘자가 5월 31일 하였다.

로씨야의 마스통신은 김정은령도자께서 대동강자라공장을 방문하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대동강자라공장을 선진적인 양식방법과 기술이 도입된 양식의 본보기단위로 전변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로씨야의 신문 《모스콥스키 프소볼레트》, 예호 모스크비방 송, 인터넷통신 로스발트,

본사기자

김일성공원이 수리아에 새로 꾸려지게 된다

자주위업의 걸출한 수령이시며 절세의 대성인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존함이 세기와 더불어 진보적인류의 심장속에 깊이 빛나고있는 속에 수리아에 김일성공원이 새로 꾸려지게 된다.

디마스끄도청에서는 하페즈 알 아사드 전 수리아대통령과 함께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의 튼튼한 기초를 마련하고 수리아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물심양면의 지지성원을 보내주시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담아 디마스끄시 카파르 수짜구역 김일성거리에 새로 꾸리는 공원을

김일성공원으로 명명하기로 하였다.

김일성공원명명에 관한 결정이 5월 18일 도청 제25차 집행리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5월 18일과 19일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도이쉴란트반제연단 인터넷홈페이지 《현지지도소식들》은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에 드리는 훌륭한 선물을 마련한 국방과학부문과 군수공장의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 일군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당중앙의 전략적기도를 실현하기 위한 조선식의 최첨단무장장비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로씨야의 인터넷통신 인메르노보스케, 이란의 파르스통신, 신문 《이란 메일리》, 프레스 TV방송, 이리브방송, 일본의 교도통신, 네팔의 신문 《나고리코》, 라지오방송, 몽골신문 《어너더》, 세네갈신문 《레 보블레트》, 나이지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 도이쉴란트반제연단 인터넷홈페이지 《현지지도소식들》도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도이쉴란트반제연단 인터넷홈페이지 《현지지도소식들》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264대련합부대 지휘부를 시찰하신 소식을, 이란신문 《이란 뉴스》, 나이지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는 이 소식과 함께 조선인민군 제810군부대산하 석막대서양 연어종어장과 락산바다연어양어사업소를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전하였다.

파키스탄 신문 《엘렉 셉타임스》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5차 훈련인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신 소식을 게재하였다.

로씨야, 이란, 도이쉴란트의 출판보도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들을 모시였다.

본사기자

북남관계를 파괴한 광란적인 전쟁도발책동

력사적인 6.15 공동선언발표 15년이 다가오고있는 지금 우리 겨레는 북과 남이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따라 대화하고 협력하면서 관계개선을 도모하고 그 길에서 사변적성과파괴를 이룩한 그 감격적인 나날을 돌이켜보고있다. 그럴수록 6.15 공동선언을 부정하고 그 리념을 반대하면서 외세와 야합하여 반공화국대결소동으로 북남관계를 최악의 파국상태에 몰아넣은 피뢰보수세대에 대한 치사는 분노를 금치 못하고있다.

6.15 공동선언의 발표이후 활력있게 발전한 북남관계는 남조선에서 극악한 반미지배인 이명박연대에 이어 그와 조금도 다를바 없는 박근혜가 집권하면서 줄곧 대화도 협력도 없는 극도의 파국상태에 처해있다.

우리 공화국은 민족의 운명과 조국통일의 전도가 달린 북남관계의 개선을 위하여 지금껏 온갖 성의와 노력을 기울여왔다. 남조선에서 그 무슨 《신뢰》의 간판을 내건 박근혜 《정권》이 등장한 이후에도 6.15의 기치마라 불미스러운 북남관계에 화해와 단합의 판에코로 전환시키기 위해 대방한 제안들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해 줄기찬 노력을 기울여왔다. 조국해방 일흔흔이 되는 올해에만도 우리는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토를 열어나갈 확고부동한 의지를 표명하고 북남관계에서의 대견한, 대변혁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하지만 북남관계는 개선이 아니라 나날이 긴장경화하는 처지였다. 무엇보다도 피뢰파당이 우리의 북남관계개선에 노력을 다진 반면 외세와 함께 동족을 해치는 온 민족의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발판적으로 매달렸기때문이다.

남조선에서 감행되고있는 북침전쟁도발책동은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간 주된 원인이자 원흉이다.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무력으로 해치는 것은 피뢰보수세대의 변함없는 흉심이다.

현 피뢰집권세력은 미국과 함께 끊임 없는 북침전쟁연습으로 우리 공화국에 부당한 위협을 가하여 불순한 목적을 실현할 계획에 온 겨레의 한결같은 단결규탄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에서 헤매다 《키 리졸브》, 《독수리》, 《유지 프리덤》이라는 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한 각종 대규모적인 전쟁발장난소동들을 연이어 벌여놓았다.

피뢰집권자인 박근혜는 북침전쟁연습을 반대하는 내외의 규탄여론이 높아질 때마다 《어떤 경우에도 합동군사연습은 예정대로 진행》되어야 한다느니, 《천하가 태평하다고 해도 전쟁을 잊으면 안 된다》느니, 《남북관계와 판개에는 흥심 없는 《키 리졸브》, 《독수리》, 《유지 프리덤》이라는 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한 각종 대규모적인 전쟁발장난소동들을 연이어 벌여놓았다.

미국과 남조선피뢰파들이 저들의 이러한 군사적도발책동들에 대해 그 누구의 《위협》에 대처한 《년례적인 방어훈련》이니 뭐니 하는 궤변들을 늘어놓지만 그것은 북남관계악화의 궤인을 모면하고 한낱 안보태세를 갖추어야 한다느니 하는 호전적도발책동들을 량탕 궤지면서 줄기찬 동족을 반대하는 전쟁도발책동으로 미친듯이 내몰았다.

남조선피뢰파들이 감행하고있는 북침합동군사연습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로골적인 침략위협이며 적대시정책의 발로로서 그 의도는 북남관계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바라는 온 겨레에 대한 로골적인 도전이었다.

더욱이 엄중천은 피뢰파정권이 합동군사연습을 구실로 남조선에 미국의 핵실험장지점들을 대량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호전파들은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이 강행될 때마다 미해방군을 전진단과 핵잠수함은 물론 《B-2》, 《B-52》, 《F-22》 스텔스 전투기를 비롯한 전 령력투력부대를 남조선에 끌어들이도록 도전반도에 일촉즉발의 초긴장상태를 조성하였다.

현 피뢰집권세력의 북침전쟁도발책동은 각종 모험적인 핵전쟁도발책동들을 꾸이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 미쳐날뛰

총련결성 60돌경축 재일동포대축전 진행

【도쿄 6월 1일 조선통신발 조선중앙통신】총련결성 60돌경축 재일동포대축전은 5월 31일 도쿄조선중고급학교에서 진행되었다.

그는 축전을 통해 단결된 힘을 온 세상에 파시하고 소리높이 자랑하며 동포들과 후대들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영광스러운 길정음시제 재일연공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고 하면서 축전개막을 선언하였다.

먼저 간도지방 동포들과 조선대학교, 조선고급학교 학생들이 출연하는 대합창 《조국사랑》, 대합창과 무용 《우리 자랑》, 대합창과 무용 《우리 자랑》이 연주되었다. 이어 《재일동포사회가 언제나 화목하고 약동하며 민족적정서로 차넘치게 하자》, 《감사, 행복, 동포들과 후대들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라는 구호들이 축전장에 울려 퍼졌다.

이후 총련중앙상임위원회의장과 부위원장, 총련중앙감사위원회의 위원장, 재일본조선청년학생회위원장, 간도지방의 흥원본부 위원장들과 상공회 회장들, 중앙단체, 사업체 책임일꾼들, 일본각지의 총련일꾼들과 동포들, 조선대학교와 간도지방의 조선학교 학생들이 축전에 참가하였다.

애국가가 주악되는 속에 공화국이 개양되었다.

연설자는 총련일꾼들과 재일동포들이 총련결성이래 60년동안 풍파사나온 이국땅에서도 오직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받들고 총련의 투리에 굳게 굳어 애국의 선각자의 영예를 떨쳐온 데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축전을 통해 단결된 힘을 온 세상에 파시하고 소리높이 자랑하며 동포들과 후대들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영광스러운 길정음시제 재일연공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고 하면서 축전개막을 선언하였다.

이후 총련중앙상임위원회의장과 부위원장, 총련중앙감사위원회의 위원장, 재일본조선청년학생회위원장, 간도지방의 흥원본부 위원장들과 상공회 회장들, 중앙단체, 사업체 책임일꾼들, 일본각지의 총련일꾼들과 동포들, 조선대학교와 간도지방의 조선학교 학생들이 축전에 참가하였다.

연설자는 총련일꾼들과 재일동포들이 총련결성이래 60년동안 풍파사나온 이국땅에서도 오직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조선민족을 전멸시키려는 미제와 그 주구들의 생화학전쟁도발책동을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미군범죄진상규명 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 북측본부 대변인담화

최근 미국이 남조선의 오산비공군기에 살이있는 탄저균을 비밀리에 들여온 사실이 드러나 온 겨레의 치사는 격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일명 《공포의 백색가루》로 불리우는 탄저균은 생물무기 가운데서도 그 살상력이 95%에 이르는 위험천만한 살인무기로써 미국이 가장 중요시하는 전쟁수단중의 하나이다.

지금 남조선의 야당들과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은 미국이 피뢰정부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일의 시기에 탄저균까지 마구 들여와도 속수무책의 무방비상태에 있는 현실을 개탄하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미국과 북핵폐양의 사과, 불명등한 남조선미국 《행정청정》 등기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이에 다급해진 미국은 《완전 폐기처분》이니, 《사과》니, 《책임있는 조치》니 하고 떠드는 한편 《북의 탄저균공격에 대비한다》고 하며 우리를 겁주고 들면서 남조선인민들의 반미감정을 농작하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있다.

썩개빠진 매국역적무리인 박근혜당은 《단순실수》니, 《행정청정정정》이니 하고 자기합리화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탄저균의 범죄행위를 적극 비호두둔하는가 하면 《북이 10여종의 생물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남이, 《세계 3위수준의 화학전력》이니 뭐니 하고 뉘대면서 비선언의 이복을 우리에게 돌려 준다면서 미치나쁘려고 발악하고있다.

사면초방정신규명 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 북측본부는 남조선에 탄저균을 비롯한 생화학무기

를 마구 끌어들이 우리 민족의 생수를 위협하는 미국과 이를 비호두둔하는 남조선피뢰적계파의 책동을 전후에 용납 못할 반민족적, 반민주적범죄행위로 탄원하고 온 겨레의 이름으로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더욱이 경악을 금할수 없는 것은 미국과 피뢰파당이 가지고 있는 미국의 《생화학무기개발》을 때때로 저들의 북침생화학전쟁도발책동을 정당화해려고 발악하고있는 것이다.

이런 남조선에 대한 탄저균을 인본사건에 탄저균까지 마구 들여와도 우리에 대한 생화학전쟁을 목표로 그 준비를 체계적으로 하여 왔다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다. 저들의 침략행위를 실현하려는 미제의 날강도적본성은 이미 지난 조선전쟁시기에 감행된 세균전행에 의해 백일하에 드러났다.

미제는 국제적으로도 사냥이 금지된 탄저균, 페스트, 콜레라, 장티프스 등이 들어있는 세균독탄을 로탄을 우리 공화국북반부지역에 대량적으로 퍼부어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우리 인민의 철천지원수, 살인악마이다.

미제야수들은 지난 1950년대의 침략을 만회해보려고 남조선에서 세균전, 화학전준비를 더욱 미친듯이 벌여왔다.

미제는 남조선에 동지를 둔 미군기지와 도처에 탄저균을 배포하고 있다. 《남이, 《세계 3위수준의 화학전력》이니 뭐니 하고 뉘대면서 비선언의 이복을 우리에게 돌려 준다면서 미치나쁘려고 발악하고있다.

사면초방정신규명 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 북측본부는 남조선에 탄저균을 비롯한 생화학무기

애국위업의 한길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총련은 사회주의조국의 한 뿌리이며 재일동포들은 어머니조국과 한민족을 잇고 사는 친형제, 한민족의 아들이다.》

인원은 16명, 평균 나이는 84살, 전직은 총련중앙본부 국장, 현본부 위원장, 여성동맹을 비롯한 단합단체, 사업체의 책임자, 학교교장...

이들은 총련결성 60돌을 맞으며 조국통일을 위한 헌신적인 자세를 보여준다.

우리는 높은 애국심과 애국정신을 가진 애국자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애국정신을 발판으로 애국위업을 이룩하고 있다. 그들은 애국정신을 발판으로 애국위업을 이룩하고 있다. 그들은 애국정신을 발판으로 애국위업을 이룩하고 있다.

우리는 높은 애국심과 애국정신을 가진 애국자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애국정신을 발판으로 애국위업을 이룩하고 있다. 그들은 애국정신을 발판으로 애국위업을 이룩하고 있다.

우리는 높은 애국심과 애국정신을 가진 애국자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애국정신을 발판으로 애국위업을 이룩하고 있다. 그들은 애국정신을 발판으로 애국위업을 이룩하고 있다.

《조선학교차별반대, 고등학교지원제도를 적용하라!》, 《일본정부는 독도침탈야욕을 즉각 포기하라!》

일본의 민족차별책동과 침략야망을 규탄하는 금요일행동 서울에서 전개

【평양 6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의 《우리 학교와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이 5월 29일 서울의 일본대사관앞에서 일본정부의 재일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정책폐지와 력사의공정성을 요구하는 금요일행동을 전개하였다.

반반자들은 일본정부가 아직까지도 재일조선학교들을 고등학교지원제도 적용에서 제외시키고있으며 지방지원을 중지하고있고 폭로하였다.

더욱이 독도와 명백한 조선의 땅이라는 력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다케시마(독도)의 날》 행사를 벌이는 등 력사의공과를 영도강탈책동에 매달리고있다고 규탄하였다.

일본의 조선학교차별책동은 모든 아동이 차별없이 교육을 받을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데

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반대하여 통성

남조선의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부당한 차별대우에 항의하여 통성이 일어났다.

공공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전국적으로 교육공무직원부, 학교비정규직노동자대회에서 5월 28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통성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근 학교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차별해소를 위한 단계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40%이상 차지하는 15만 명의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일제히 발동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부가 학교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차별해소를 위한 단계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40%이상 차지하는 15만 명의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일제히 발동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호흡기성전염병 피해 계속 확대

남조선에서 호흡기성전염병에 의한 인명피해가 계속 확대되고있다.

피뢰보진당국은 지난 5월 30일 현재 13명의 증증환자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환자들보다 더 첫 환자가 입원하고있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간호를 하다가 감염되었다고 언명하였다. 특히 이의 하수인, 몸서리치는 파소교형틀을 피뢰국무총리자리에 한사코 들어앉히려는 집권자의 속심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남조선 각계가 평안보다는 자기에게 명목적으로 추종하며 파소교형틀에서 악명을 떨친 화교안연도 내세워 그 무슨 《부패척결》과 《법치》의 간판에 야당들을



일본의 파거침탈과 군국주의부활책동을 규탄하는 남조선인민들



일본의 파거침탈과 군국주의부활책동을 규탄하는 남조선인민들

홍익인간의 길에서

우리는 높은 애국심과 애국정신을 가진 애국자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애국정신을 발판으로 애국위업을 이룩하고 있다. 그들은 애국정신을 발판으로 애국위업을 이룩하고 있다.

우리는 높은 애국심과 애국정신을 가진 애국자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애국정신을 발판으로 애국위업을 이룩하고 있다. 그들은 애국정신을 발판으로 애국위업을 이룩하고 있다.

우리는 높은 애국심과 애국정신을 가진 애국자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애국정신을 발판으로 애국위업을 이룩하고 있다. 그들은 애국정신을 발판으로 애국위업을 이룩하고 있다.

피뢰집권자가 악질적인 동족대결판시안인 화교안연이 《국무총리》의 비릇한 진보민주세력의 진출을 가로막고 극도의 통치위기를 모면해보려는것이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피뢰집권자의 반민적악정에 격분한 각계의 반 《정부》투쟁이 어느때보다도 격조되고있다. 더욱이 특대행정부패사건인 선관사건이 터져나오면서 이른바 《청렴》과 《도덕성》을 떠들던 박근혜는 《정권의 존엄성분까지 상실》하였다.

당황망중한 피뢰보수세대는 인민들의 대중적인 반 《정부》투쟁을 악명높은 파소교복소동으로 짓눌러버리고 피하고있다. 피뢰집권자는 저들의 그 흉악한 파소적음모의 조직자, 실용자로서의 가장 적합한 인물인 화교안연이라고 보고있는것이다. 이번 피뢰국무총리후보명명에는 그 무슨 《개혁》의 미명하에 국제적인 《국경운영》으로 각계의 규탄을 받는 반민적악당들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정권》 기반을 다져

우주는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다

우주를 평화적으로 리용하는것은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지향이다. 그에 배치되게 우주를 지배적목적 실현을 위한 공간으로 삼고 여기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있는 나라는 있다.

최근 미공군이 무인우주비행선(X-37B)을 발사하였다. 자료에 의하면 이번 발사는 1999년에 처음으로 시작된데 4번째이다.

미공군대변인은 무인우주비행선에 여러개의 나노위성들이 적재되어있다고 하면서 비행목적은 태양빛전지판의 시험이라고 둘러댔다. 그는 우주비행선이 정보활동도 하는가라는 질문에 비행선의 능력과 관련하여서는 논쟁하지 않는다고 대답을 회피하였다.

미국은 무인우주비행선을 개발한 목적부터 철저한 비밀로 취급하고있다. 따라서(X-37B)의 능력도 비밀에 붙이고있다. 미국이 무인우주비행선의 능력에 대해 공개하지 않으려는것자체가 그것이 군사적용도로 개발한 우주무기이 되는것을 드러내려는것이다.

우주비행선이 평화적인 우주개발에 리용된다면 그 능력에 대해 구태여 비밀에 붙일 필요가 없다. 군사전문가들은 이 우주비행선의 사용목적에 대하여 여러가지로 추측하고있다. 비행선이 우주에서 작전할수 있는 정찰기 혹은 무인전투복격기일수 있다

는것이다. 일부 나라들은 그것이 미공군이 제작, 발사하는 무기를 수송하는데 리용되는 우주군용비행기라고 간주하고 있다. 2010년에 발사된 우주비행선은 온 2년동안 우주에서 비밀작전을 수행하고 지구에 돌아왔다.

우주비행선을 무인우주전투기로 보는 견해들을 지나친 억측이나 가설이라고 볼수는 없다. 미국은 1980년대 레간행정부가 추진해온 《별세계전쟁》계획을 재현해보려고 음모양모로 책동하고있다. 현재 기 첫해에 미국방성은 공군의 우주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우주군사화계획을 발표하였다.

2006년에 미국에서 있는 우주무기개발문제에 관한 토론회라는데서 미공군산하기구인 우주사령부 부사령관은 만일 어떤 나라가 정찰용인공위성을 우주에 올려놓는다면 미국은 그것을 무력화시킬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상군이 어디로 움직이고있는지 알려지는것을 원치 않기때문이다라고 떠벌린적이 있다.

이것은 미국이 21세기에 들어와 우주군사화계획을 새롭게 작성하고 그 실행에 박차를 가해왔다는것을 실증해준다. 미공군이 이번엔 좌출된 무인우주비행선이 이런 우주군사화계획의 일환이라는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외신들에 의하면 초기에 미국항공우주국이 주

관하던 우주비행선이 몇년이나 지난 후에는 미공군으로 이전되었다. 그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다른 나라들의 위성을 무력화시키겠다고 한 미군부고위관리의 말발과 편결시켜보면 우주비행선이 그런 사명을 안고있는것이 분명하다.

미국이 《별세계전쟁》을 꿈꾸고있다는것을 보여주는 다른 자료도 있다. 지금 미공군은 1시간내에 세계의 어떤 목표도 타격할수 있는 극초음속무기개발을 다그치고있다. 현재 연구중인 로켓추진활공무기라는 이 새로운 종류의 극초음속미사일을 가까운 년간에 시험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것은 우주의 군사화를 반대하는 국제법적요구를 무시하고 절대적인 군사적패권을 유지하며 힘에 의한 세계제국을 실현해보려는 미초전광들의 책동이 더욱더 분별을 잃고 감행되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1960년대에 유엔에서 채택된 《달과 기타 천체들을 포함한 우주탐사와 리용에서 국가들의 활동원칙에 관한 조약》에는 우주공간에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를 전개하거나 우주에서 무기시험 또는 군사훈련을 하는것을 금지하며 우주의 개발 및 리용이 세계의 평화와 안전, 국제적협동도모하는것으로 되어야 한다고 밝혀져있다.

군사적목적의 무인우주비행선을 쏘아 올리고 극초음속미사일을 개발하고있는 미국의 책동은 우주물 인류의 복리증진을 리용할데 대한 국제법규에 어긋나는 비법행위이며 인류의 지향에 대한 엄청난 도전이다.

문제는 미국이 저들은 국제법까지 짓밟고 우주무기들을 제멋대로 쏘올리면서도 평화적목적의 인공지구위성을 발사한 우리를 범죄시하고있는것이다. 어떤 나라의 우주군사화책동은 묵인되고 어떤 나라의 평화적인 우주개발활동은 문제시되는것자체가 불공평한 이중기준의 극치이다.

미국의 날로 로골화되는 우주군사화책동은 세계적으로 새로운 군비경쟁을 몰아오고있으며 인류의 생존을 엄중히 위협하고있다. 정세분석가들은 개발중인 미국의 극초음속미사일이 핵무기로 혼돈되어 우발적인 보복타격, 핵전쟁까지 초래할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하고있다.

미국이 우주를 세계제국을 위한 전쟁마당으로 전전시키려는것을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 우리는 《별세계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미국의 책동을 팔방을 끼고있어 구경만 하지 않을것이다. 세계제국야망에 들떠 우주를 침략전쟁에 악용하고있는 미초전광들은 분별있게 처신해야 한다.

김일성주석의 당건설정책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1년에 즈음하여 5월 13일 도이리네트홈페이지에 기념글을 올렸다.

도이리네트홈페이지는 《김정일, 불멸의 당건설정책》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김정일각하께서는 1964년 6월 19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시었다. 그이께서는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조선로동당의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내세우시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시었다.

또한 조선로동당을 그창건자인 김일성주석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었다. 조선로동당과 혼연일체를 이루고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며 인민을 위해 충실히 복무하는 인민의 당으로 건설하

시었다. 그이께서는 1990년대 변화된 환경과 정세발전의 요구에 맞게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지방법으로 정립하시고 조선로동당을 선군혁명위업을 빛나게 향도해나가는 강위력한 정치적력량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시었다.

또한 조선의 군대와 인민을 정신력의 강자로 키워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기적과 변혁을 창조해나도록 하시었다. 조선의 군대와 인민이 어려운 조건에서도 불굴의 정신력으로 국토의 면모를 일신시키고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를 다그치며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서 일대 전성기를 얻어나가있다는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사상사업에 첫째가는 힘을 넣어오신 김정일각하의 혁명적 령도를 빛나는 결실이다.

김정일각하께서 당건설분야에 쌓아올린 불멸의 업적은 승승장구하는 사회주의조선과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다. 김정일각하의 혁명적 령도를 빛나는 결실이다. 김정일각하께서는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드시고 적들의 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수 많은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어 진보적인류가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는 위대한 리양이시이다. 그이께서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기간간 일관하게 틀어쥐신 주체사상, 선군사상은 진보적인류에게 있어서 귀중한 사상리론적재부이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만마, 월남의 출판보도물들이 우리 나라를 소개하였다.

만마, 월남의 출판보도물들이 우리 나라를 소개하였다.

장 등 봉사조건이 그흔히 갖추어져있기때문에 손님들이 휴식의 한때를 즐겁게 보낼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친선 및 문화협조 로씨야행사가 일본당국의 반총련책동을 규탄하여 얼마전 성명을 발표하였다.

일본당국의 총련탄압만행을 규탄

로씨야, 벨스까 단체들 성명 발표

만마, 월남의 출판보도물들이 우리 나라를 소개하였다. 만마신문 《글로벌 뉴파이트 오브 만마》는 조선에서 5월1일경기장을 개전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위대한 김정일각하의 위업을 계속하시신 경애하는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나라의 재흥발전에 커다란 관심을 돌리고계신다. 그이께서는 2013년 9월 수도 평양을 감동하오르는 대동강의 풍광에도 위치한 5월1일경기장을 완전히 일신시킬것을 발표하시고 그를 위한 대책까지 세워주시었다. 하여 경기장은 그 면모를 일신하게 되었다. 5월1일경기장에는 15만석의

관람석을 가진 축구장과 특상수조가 있다. 관람석의자와 관람홀, 계단부분의 색깔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를 상징하는 붉은색, 푸른색, 흰색으로 되어있다. 또한 선수침실, 감독실, 심판원실 등이 국제기준에 부합되게 꾸러졌으며 현대화된 조명장치가 경기장에 설치되어있다. 이 나라의 TV방송은 마시평스키장을 소개하는 편성물을 방영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에서는 스키를 발전시키며 인민들이 스키를 타면서 체력도 단련하고 마음껏 휴식도

할수 있도록 마시평산줄기에 스키장을 건설하였다. 스키장에는 10개의 스키주로가 있다. 스키장에는 스키를 타는데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손님들에게 봉사하고있다. 스키를 처음 타는 사람들은 먼저 초급주로를 스키를 배울수 있다. 스키장에는 수평상강기와 삭도들이 설치되어있으며 스키장정비에 올라가기 위해 눈노로 바이도 리용하고 있다. 마시평스키장에는 스키에호가들과 관광객들을 위한 훌륭한 마시평호텔이 있다. 호텔에는 식당과 상점, 수영

장 등 봉사조건이 그흔히 갖추어져있기때문에 손님들이 휴식의 한때를 즐겁게 보낼수 있다. 마시평지구는 겨울철스키관광으로 유명할뿐아니라 깨끗한 자연환경과 수려한 경치로 하여 여름철에도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월남의 인터넷통신 전 제는 《수도 평양의 아름다운 화폭》이라는 표제에 《현대적인 건축물과 대규모적인 유원지들 더욱 훌륭히 변모되는 평양》이라는 제목을 달고 인민군구, 미림승마구락부, 유류자동방화, 조국해방전승리기념관 등 기념비적건축물들과 우리 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보여주는 29장의 사진들을 편집하였다.

또한 조일관계는 물론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전보장에도 중요한 후과를 초래하게 될것이다. 우리는 이웃나라들과의 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당한 정책을 전적인 지지를 표시한다. 또한 총련과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온갖 탄압만행을 즉시 중지할것을 일관되게 강력히 요구한다. 동북아시아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은 값비싼 대가로 마련된것이다.

로씨야, 벨스까 단체들 성명 발표. 또한 조일관계는 물론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전보장에도 중요한 후과를 초래하게 될것이다. 우리는 이웃나라들과의 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당한 정책을 전적인 지지를 표시한다. 또한 총련과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온갖 탄압만행을 즉시 중지할것을 일관되게 강력히 요구한다. 동북아시아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은 값비싼 대가로 마련된것이다.

로씨야 미국과 유럽동맹의 제재를 무익한것으로 략인

로씨야 미국과 유럽동맹의 제재를 무익한것으로 략인

국방력강화와 사회적진보를 위한 노력

로씨야에서 최근 신형장기류 《라프니크》를 군대에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로씨야에서 최근 신형장기류 《라프니크》를 군대에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로씨야에서 최근 신형장기류 《라프니크》를 군대에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로씨야에서 최근 신형장기류 《라프니크》를 군대에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이 장기류는 저격무기와 조준 및 보조체계, 통신, 포로표지, 위치관정수단들을 비롯한 약 40가지 요소를 갖추고있다. 한해에 적어도 5만개의 신형장기류가 군대에 납입될것이라고 한다.

로씨야에서 최근 신형장기류 《라프니크》를 군대에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이 장기류는 저격무기와 조준 및 보조체계, 통신, 포로표지, 위치관정수단들을 비롯한 약 40가지 요소를 갖추고있다. 한해에 적어도 5만개의 신형장기류가 군대에 납입될것이라고 한다.

로씨야에서 최근 신형장기류 《라프니크》를 군대에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이 장기류는 저격무기와 조준 및 보조체계, 통신, 포로표지, 위치관정수단들을 비롯한 약 40가지 요소를 갖추고있다. 한해에 적어도 5만개의 신형장기류가 군대에 납입될것이라고 한다.

로씨야에서 최근 신형장기류 《라프니크》를 군대에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이 장기류는 저격무기와 조준 및 보조체계, 통신, 포로표지, 위치관정수단들을 비롯한 약 40가지 요소를 갖추고있다. 한해에 적어도 5만개의 신형장기류가 군대에 납입될것이라고 한다.

로씨야에서 최근 신형장기류 《라프니크》를 군대에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이 장기류는 저격무기와 조준 및 보조체계, 통신, 포로표지, 위치관정수단들을 비롯한 약 40가지 요소를 갖추고있다. 한해에 적어도 5만개의 신형장기류가 군대에 납입될것이라고 한다.

로씨야에서 최근 신형장기류 《라프니크》를 군대에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이 장기류는 저격무기와 조준 및 보조체계, 통신, 포로표지, 위치관정수단들을 비롯한 약 40가지 요소를 갖추고있다. 한해에 적어도 5만개의 신형장기류가 군대에 납입될것이라고 한다.

단평 《인권옹호국》에서의 연극

단평 《인권옹호국》에서의 연극

단평 《인권옹호국》에서의 연극

단평 《인권옹호국》에서의 연극

단평 《인권옹호국》에서의 연극

단평 《인권옹호국》에서의 연극

최근 미국의 오하이오주재판소가 흑인들을 살해한 경찰들에게 무죄를 선언하였다. 그들로 말하면 3년전 차를 타고가던 2명의 흑인들을 무려 백수십발의 총탄을 퍼부어 숨지게 한 살인자였다.

최근 미국의 오하이오주재판소가 흑인들을 살해한 경찰들에게 무죄를 선언하였다. 그들로 말하면 3년전 차를 타고가던 2명의 흑인들을 무려 백수십발의 총탄을 퍼부어 숨지게 한 살인자였다.

최근 미국의 오하이오주재판소가 흑인들을 살해한 경찰들에게 무죄를 선언하였다. 그들로 말하면 3년전 차를 타고가던 2명의 흑인들을 무려 백수십발의 총탄을 퍼부어 숨지게 한 살인자였다.

최근 미국의 오하이오주재판소가 흑인들을 살해한 경찰들에게 무죄를 선언하였다. 그들로 말하면 3년전 차를 타고가던 2명의 흑인들을 무려 백수십발의 총탄을 퍼부어 숨지게 한 살인자였다.

최근 미국의 오하이오주재판소가 흑인들을 살해한 경찰들에게 무죄를 선언하였다. 그들로 말하면 3년전 차를 타고가던 2명의 흑인들을 무려 백수십발의 총탄을 퍼부어 숨지게 한 살인자였다.

최근 미국의 오하이오주재판소가 흑인들을 살해한 경찰들에게 무죄를 선언하였다. 그들로 말하면 3년전 차를 타고가던 2명의 흑인들을 무려 백수십발의 총탄을 퍼부어 숨지게 한 살인자였다.

과 학기 술 이 롱 사 회 의 위 아 여

과 학기 술 이 롱 사 회 의 위 아 여

과 학기 술 이 롱 사 회 의 위 아 여

과 학기 술 이 롱 사 회 의 위 아 여

과 학기 술 이 롱 사 회 의 위 아 여

과 학기 술 이 롱 사 회 의 위 아 여

현시대는 과학기술의 시대이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강자가 되고 과학기술에서 뒤떨어지면 약자가 될수 있는것이 바로 오늘날의 현실이다.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근원동력은 인제육성에 있다. 아무리 자금이 많고 자연부원이 풍부하다고 해도 인제육성이 부족하면 국력이 약해지고 순간에 시대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 생활체육을 통하여 새 사회건설과 민족의 부흥발전을 이룩하는에서 인제와 과학기술이 있는 역할을 노는 시한 여러 나라들에서 교육사업을 개선해나가고있다. 교원들의 수준을 높이고 교육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이며 그의 물질적보대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있다. 칠레정부가 나라의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고있다. 올해 학년도를 맞으며 전국의 학교들이 무상으로 교과서들을 공급하였는데 다음해부터는 고등교육부문에서 무료교육

현시대는 과학기술의 시대이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강자가 되고 과학기술에서 뒤떨어지면 약자가 될수 있는것이 바로 오늘날의 현실이다.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근원동력은 인제육성에 있다. 아무리 자금이 많고 자연부원이 풍부하다고 해도 인제육성이 부족하면 국력이 약해지고 순간에 시대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 생활체육을 통하여 새 사회건설과 민족의 부흥발전을 이룩하는에서 인제와 과학기술이 있는 역할을 노는 시한 여러 나라들에서 교육사업을 개선해나가고있다. 교원들의 수준을 높이고 교육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이며 그의 물질적보대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있다. 칠레정부가 나라의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고있다. 올해 학년도를 맞으며 전국의 학교들이 무상으로 교과서들을 공급하였는데 다음해부터는 고등교육부문에서 무료교육

현시대는 과학기술의 시대이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강자가 되고 과학기술에서 뒤떨어지면 약자가 될수 있는것이 바로 오늘날의 현실이다.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근원동력은 인제육성에 있다. 아무리 자금이 많고 자연부원이 풍부하다고 해도 인제육성이 부족하면 국력이 약해지고 순간에 시대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 생활체육을 통하여 새 사회건설과 민족의 부흥발전을 이룩하는에서 인제와 과학기술이 있는 역할을 노는 시한 여러 나라들에서 교육사업을 개선해나가고있다. 교원들의 수준을 높이고 교육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이며 그의 물질적보대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있다. 칠레정부가 나라의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고있다. 올해 학년도를 맞으며 전국의 학교들이 무상으로 교과서들을 공급하였는데 다음해부터는 고등교육부문에서 무료교육

현시대는 과학기술의 시대이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강자가 되고 과학기술에서 뒤떨어지면 약자가 될수 있는것이 바로 오늘날의 현실이다.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근원동력은 인제육성에 있다. 아무리 자금이 많고 자연부원이 풍부하다고 해도 인제육성이 부족하면 국력이 약해지고 순간에 시대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 생활체육을 통하여 새 사회건설과 민족의 부흥발전을 이룩하는에서 인제와 과학기술이 있는 역할을 노는 시한 여러 나라들에서 교육사업을 개선해나가고있다. 교원들의 수준을 높이고 교육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이며 그의 물질적보대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있다. 칠레정부가 나라의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고있다. 올해 학년도를 맞으며 전국의 학교들이 무상으로 교과서들을 공급하였는데 다음해부터는 고등교육부문에서 무료교육

현시대는 과학기술의 시대이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강자가 되고 과학기술에서 뒤떨어지면 약자가 될수 있는것이 바로 오늘날의 현실이다.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근원동력은 인제육성에 있다. 아무리 자금이 많고 자연부원이 풍부하다고 해도 인제육성이 부족하면 국력이 약해지고 순간에 시대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 생활체육을 통하여 새 사회건설과 민족의 부흥발전을 이룩하는에서 인제와 과학기술이 있는 역할을 노는 시한 여러 나라들에서 교육사업을 개선해나가고있다. 교원들의 수준을 높이고 교육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이며 그의 물질적보대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있다. 칠레정부가 나라의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고있다. 올해 학년도를 맞으며 전국의 학교들이 무상으로 교과서들을 공급하였는데 다음해부터는 고등교육부문에서 무료교육

현시대는 과학기술의 시대이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강자가 되고 과학기술에서 뒤떨어지면 약자가 될수 있는것이 바로 오늘날의 현실이다.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근원동력은 인제육성에 있다. 아무리 자금이 많고 자연부원이 풍부하다고 해도 인제육성이 부족하면 국력이 약해지고 순간에 시대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 생활체육을 통하여 새 사회건설과 민족의 부흥발전을 이룩하는에서 인제와 과학기술이 있는 역할을 노는 시한 여러 나라들에서 교육사업을 개선해나가고있다. 교원들의 수준을 높이고 교육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이며 그의 물질적보대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있다. 칠레정부가 나라의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고있다. 올해 학년도를 맞으며 전국의 학교들이 무상으로 교과서들을 공급하였는데 다음해부터는 고등교육부문에서 무료교육

7-510859 (정기간행물번호) (정기간행물발행승인번호) 취급승인 제 3호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회정보부 373-0712, 특고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

7-510859 (정기간행물번호) (정기간행물발행승인번호) 취급승인 제 3호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회정보부 373-0712, 특고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

7-510859 (정기간행물번호) (정기간행물발행승인번호) 취급승인 제 3호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회정보부 373-0712, 특고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

7-510859 (정기간행물번호) (정기간행물발행승인번호) 취급승인 제 3호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회정보부 373-0712, 특고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

7-510859 (정기간행물번호) (정기간행물발행승인번호) 취급승인 제 3호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회정보부 373-0712, 특고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

7-510859 (정기간행물번호) (정기간행물발행승인번호) 취급승인 제 3호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회정보부 373-0712, 특고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

7-510859 (정기간행물번호) (정기간행물발행승인번호) 취급승인 제 3호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회정보부 373-0712, 특고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